

한글대장경 간행의 의의와 과제

김 은 중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목 차

- | | |
|----------------|---------------------|
| 1. 한글과 역경의 밀접성 | 5. 한글대장경 보완의 과제 |
| 2. 역경의 시대 구분 | 6. 전자불전 제작의 현황과 주안점 |
| 3. 역경의 이념 | 7. 문화 전략으로서의 전자불전 |
| 4. 한글대장경의 의의 | |

1. 한글과 역경의 밀접성

한국에서 번역은 외국어로 된 문헌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일컫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번역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1443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영어로 된 문헌을 번역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어로 된 문헌의 번역일 것이다.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때부터 이십세기 전반기까지는 한자 문헌의 한글 번역이 있었을 텐데 조선 사대부의 언어관 등을 고려할 때 번역량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번역의 대부분은 아마도 불전 번역이 아니었나 한다. 사실 한자로 된 불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은 한국 번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초의 한글 번역물은 1447년에 초간이

나온 釋譜詳節이다. 외국어를 한글로 옮기는 의미에서의 번역이라는 개념도 釋譜詳節 序에서 최초로 쓰였다. 또한 한국 번역사상 가장 방대한 작업은 조선왕조실록의 번역과 고려대장경을 토대로 한 한글대장경 간행이다. 물론 신라시대의 승려들이 불교의 내용을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 이두를 사용했고, 고려의 균여가 <십구장원통기>를 방언으로 표기한 것은 불교가 한자의 굴레를 벗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다. 이런 흔적을 볼 때 한글 창제 이전에도 불교계는 우리말로 된 경전을 가지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한글을 가리켜 '중글'이라고 비하했는데, 이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세운 조선의 사대부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한글을 무시하는 뜻에서 훈민정음을 일컬어 '언문', '반절', '암글', '중글' 등으로 낮추어 부른 것의 한 경우이다. 이때 '중글'은 '중들의 글자'라는 뜻으로 유학유교가 나라의 이념인지라 상대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불교 승려들을 깔보던 의식이 반영된 말이다. 곧 절의 승려들이 한글을 가지고, 불경도 번역하고 찾아 드는 신도들에게 교리도 가르치고 하였다고 해서 비롯된 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글과 불전의 관계는 한글 창제 때부터 지금까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 시대 승려들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한글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니 '중글'이라는 개념은 비하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불자와 불교도들이 볼 때는 오히려 한글이 그렇게 불린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한글은 탄생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면 민중의 깨달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거기에 앞장 선 이들이 불교도였기 때문이다. 불교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은 조선 오백년 동안 유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오늘날에도 유교의 흔적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으나 기실 유학의 문서들이 한글로 번역된 변변한 것이 그리 없다는데 있다. 더

나아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무수한 유학의 문헌들을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썼지만 과연 조선 사람들 가운데 몇이나 그 문헌들을 읽었을 것이며, 그런 문헌들이 조선의 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바지했는지를 생각할 때에는 조선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은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조선의 유림들이 한글을 금지한 것은 세 가지 의도에서라고 분석된다. 첫째 유림들은 한문을 종교적인 위치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들이 믿었던 유학을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유학의 권위를 지키고 유림에 바탕을 둔 정치 세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에게 한글로 가르치는 불교를 배척해야 했다. 그리고 셋째는 어려운 한자로써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유림들이 정보를 독점하였고 그것이 바로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한자로 쓰여졌다.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지만 조선의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쓰여진 것이다. 그 문헌을 대한민국이 이십육년에 걸쳐 약 이백억원을 투입해 한글로 번역했다. 조선의 유림들은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나라의 역사를 일반 백성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우리의 역사를 백성들은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한자로 기록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후손들이 훗날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그것을 번역하도록 하는 낭비와 수고를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반면에 고려대장경은 우리 문자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와 더불어 불전은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립하고 불전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동기의 순수성에서 의심되는 측면이 있지만 번역 문학의 기틀을 놓은 것이며 그 후로 사찰에서 승려들을 중심

으로, 문헌으로 남지는 않았겠지만, 불전을 번역해 신도들에게 가르쳤고, 또 이십세기 들어와서는 용성 스님에 의해 그리고 해방 후에는 여러 스님들에 의해 불전의 한글 번역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런 모태 위에서 동국역경원이 세워져 이십일세기의 벽두에 한글대장경이 완간된 것이다.

지금은 한글의 시대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한문도 익혀 알아야 하지만 이제 우리 문화와 의식을 표현하는 바탕 문자는 한글이다. 특히 지금은 한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한글 이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를 꺼린다. 국한문 혼용도 읽기 어렵는데 불전이 모두 한문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은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점에서 일찍이 한글 불전의 편찬이 한국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임을 간파하시고 동국역경원을 세워 역경 사업을 주도하신 운허 스님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을 완료하신 월운 스님께 한국 불교계는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장경의 역사를 고찰하고 역경 사업의 역사 속에 투영된 이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한글대장경의 일차적인 완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불교계가 한글대장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벌여야 하는지를 숙고하겠다.

2. 역경의 시대 구분

한국에서 불전의 번역은 크게 세 시기로 대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조선의 세조가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여러 불전을 한글로 옮긴 1461년(세조 7년)부터 1471년(성종 2년)까지의 시기이다. 일찍부터 불경에 흥미를 느꼈던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세종의 뜻을 받들어 <釋譜詳節> 을 편찬했다. 또 王位에 오른 뒤에는 3년 6월

에 해인사대장경 50권을 重印하였으며 4년 2월에는 <釋譜詳節> 과 <月印千江之曲> 2책을 합하여 <月印釋譜>를 간행하여 간경을 발원해오다가 7년 6월에 刊經都監을 창설하여 간경 사업을 대성케 할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세조는 즉위 과정에서 많은 즉위 과정에서 많은 인명을 해쳐 이를 속죄하기 위하여 불교에 심취하였으며 간경도감을 설립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주요 사업은 명승과 거유를 초빙하여 불경을 국역하고 교감하여 간행하는 일이었는데, 그밖에도 불서를 구입 또는 수집하고 왕실에서 실시하는 불사와 법회를 관장하였으며, 때로는 고승을 접대하는 일까지 맡아보았다. 그러나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유학의 진흥을 뒤에서 책동해 오던 유신들이 “간경도감은 잠정적으로 설치된 기간이며 刊經과 購經에 많은 경비가 낭비된다”는 이유를 들어 간경도감을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종 대에 접어들어 政院, 經, 藝文館 등을 비롯한 사헌부, 사간원 등의 중신들이 유신과 합세하여 반대의 의견을 더욱 극렬하게 주장하였다. 성종은 선왕의 유업을 받들고자 노력했고, 세조의 불교를 친히 받들어 온 인수대비도 배후에서 많은 성원을 지속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 성종 2년(1471년) 12월에 폐쇄되었다. 간경도감은 세조의 강력한 왕권에 의해 추진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의 숭불정책과 이념이 당시의 지배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왕실과 일부 계층 그리고 서민층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불교를 숭상한 왕과 유교의 이념을 전파하려는 유림들 사이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가 강력한 왕권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던 유림들이 약해진 왕권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삼일운동 직후에 조직된 두 개의 단체에 의한 번역 작업이다. 먼저 용성 스님은 삼일독립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석했다가 옥고를 치른 뒤 1921년 출옥과 더불어 三藏譯會를 조직하여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다. 용성 스님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종교의 서적들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에 충격을 받고 불전을 한글로 번역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장역회는 삼일운동의 영향, 다른 종교의 한글 교재로부터 받은 충격, 한문과 새로운 시대 사조에 대한 판단, 민중 불교에 대한 관심 등이 동기가 되어 출범했다. 삼장역회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1921년 8월 28일자에서 ‘불교의 민중화운동>이라고 평가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님은 한문으로 된 불교의 식을 한글화하여 불공과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는 불전의 한글화 뿐 아니라 불교의 한국화라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해 스님 역시 1922년 출옥한 뒤 역경을 위한 法寶會를 조직했다. 범보회는 “팔만대장경을 전부 순 조선말로 번역하고 또 그 래도 모를 때에는 주를 내어 아무리 초학자라도 한번 보면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하며, 이천년 동안의 고승대사의 독특한 학설을 수집하여 발행코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또한 만해 스님은 불교의 通俗化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 민중과 그 사회에 공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용성과 만해 두 스님의 역경 사업은 불교의 한국화와 민중화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백성욱, 김법린 등도 역경 사업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들 역시 불교의 민중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東國譯經院의 설립이다. 그러나 세 번째 시기는 동국역경원 설립 이후만으로 잡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동국역경원은 어느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선구자적 스님들이 한글 불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작업을 하였던 바, 그런 작업의 귀결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최초의 역경기관은 1945년 가을 종단 내에 설치된 海東譯經院

이다. 해동역경원은 “우리 문화의 옷으로 우리 불교경전이 갈아입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문화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경전을 시대에 살려가지 못한 탓”이라며 설립의 이념을 시사하고 있다. 해동역경원은 규약 2조에서 “불교의 삼장을 번역 출판하여 우리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대장경 전부를 번역의 대상으로 삼았다. 해동역경원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일부를 중앙총무원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실은 해동역경원이 어느 정도는 종단의 공식적인 기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동역경원은 창립 때의 의욕적 자세와는 달리 종단과의 관계 설정이 애매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답답하게 여긴 寂音 스님은 그 해 12월 말 김영수, 오상순, 성낙훈, 변영만 등의 도움을 얻어 護國譯經院을 세웠다. 이후 적음 스님은 1947년 1월 해동역경원을 인수해 원장을 맡고 용담, 범용 부원장, 권상노 역경부장으로 인적 구성을 갖춰 재출범한다. 1947년에는 안명언, 김동화 등이 주관하는 弘法院譯經會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해동역경원과 호국역경원, 흥법원역경회 등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정비기를 거친 뒤, 석주 스님은 운허 스님이 <불교사전>을 간행한 것을 계기로 1961년 5월 운허, 자운과 함께 法寶院을 설립해 몇몇 불전들을 등을 간행했다. 이 불전들은 대부분 운허 스님이 50년대부터 번역한 것들이었다. 이밖에 탄허 스님이 海東佛敎譯經院을 세우고 <육조단경>과 <현토역해 신화엄경합론>을 간행했다. 그리고 김달진은 <법구경>을 번역해 1962년 현암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는 민간출판사가 최초로 불교서적을 출판한 것이다.

한편 1950년대 비구승에 의해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제

양성, 포교, 역경의 삼대 사업이 책정되고 1962년 효봉 종정과 임석진 총무원장 체제의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역경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 해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가 세워졌고 17인이 역경위원에 위촉되었으며 1963년 초 운허 스님이 역경위원장, 석주 스님이 역경부장, 석정 스님이 사업부장에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인 역경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역경위원회는 1964년 7월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으로 이름과 지위를 바꾼 뒤 오늘날까지 역경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譯經院의 이름을 東國譯經院으로 한 것은 사업비의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시 정부가 다른 종교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계종단이 운영하는 역경원에 국고를 지원 할 길이 없어 역경원을 동국대학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고 정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동국역경원은 조계종단에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동시에 속한 기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동국역경원이라는 수레는 종단의 큰 뜻을 지닌 스님들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1965년 6월 동국역경원 최초의 작품인 <장아함경>이 번역 간행된 것을 시작으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종단의 무관심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매년 여덟권씩 대장경을 번역 간행했다. 동국역경원은 1979년 운허 스님이 건강 악화로 역경사업에서 손을 떼고 이듬해 타계하면서 추진력을 잃고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운허 스님의 간청으로 역경 사업을 음으로 지원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1979년 타계했다. 2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영암 스님은 1987년에 입적했고, 그 뒤를 3대 자운 스님이 맡았으나 고려대장경의 절반도 번역하지 못했다. 1992년 자운 스님이 입적하자 그 뒤를 이어 耘虛 스님의 법제자로 耘虛 스님을 도와 실제로

수많은 대장경을 직접 번역했던 월운 스님이 4대 역경원장에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월운 스님은 취임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185권의 책을 간행했다.

3. 역경의 이념

이런 세 시기의 역경 역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간경도감은 왕이 설립한 국립기관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삼장역회나 법보원은 스님이 개인적으로 세운 기구라서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해동역경원, 호국역경원, 흥법원역경회는 종단 차원 또는 개인적 차원의 조직이었으며 종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활약이 대단히 미미했다. 동국역경원은 형식적으로는 종단에 속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동국대학교에 속해 있어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고의 지원 또는 대학의 지원이 있는 경우 역경 사업이 지속된 반면에 개인적 차원의 기구는 재정 확보가 어려워, 종단 소속의 기구는 종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이 없어 사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역경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간경도감의 경우 왕명에 의해 뛰어난 학자와 승려를 모집할 수 있었다. 삼장역회, 법보원, 해동역경원, 호국역경원, 흥법원역경회 등도 뛰어난 스님들에 의해 운용되었다. 동국역경원의 경우에는 역경위원회, 기획위원회, 번역위원회, 증의위원회, 운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유통위원회 등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문과 한글에 비교적 모두 능숙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스님들과 지식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동국역경원의 경우 운허 스님께서 입적하신 뒤에는 10여 년 동안 소강상태에 있었고 1990년대에는 60년대에 비해 한문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감소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간경도감에서 동국역경원에 이르기까지의 역경 기관들이 가졌던 역경의 목적이 다. 간경도감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세조가 불전을 한글로 번역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만은 분명하며, 그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이 “어리석은 백성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조의 불전 번역 역시 백성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남의 글자인 한문은 우리말과 서로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래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백성에게는 이중으로 어려워, 시간과 경제의 여유가 없는 백성들은 한문을 익히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문으로 된 불전에서조차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편 일제 시대의 역경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했으나 역경의 이념만은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불교의 대중화 또는 민중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의 뿌리는 한글 창제의 정신과도 닿아 있다고 하겠다. 특히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된 이후 산중불교가 도회지 불교로 전환되면서 불교계는 불교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골간은 포교였고 역경은 포교를 실현하는 매개였다. 그런데 포교를 하더라도 그저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것만을 포교한다면 굳이 역경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역경이 대두된 것은 불교를 가르치면서 포교하겠다는, 곧

대중에게 지식을 제공하면서 가르치고 포교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용성 스님의 “불교의 민중화 운동”, 만해 스님의 “불교의 통속화”, 백성욱의 “대중에 대한 무책임, 무성의에 대한 반성”, 김법린의 “민중적 불교 운동” 등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일제 시대 용성, 만해, 백성욱, 김법린 등의 인물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 역경의 목적은 그러나 해방 후 해동역경원에서 동국역경원에 이르기까지는 약화된 느낌이 있다. 곧 해동역경원이 삼은 “불교의 삼장을 번역 출판하여 우리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이라는 목적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역경의 목적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민중의 불교로부터 문화로서의 불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역경은 일차적으로는 불교 대중에 대한 책임의 구현이고 이차적으로는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일 텐데 역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일차적 목적이 해동역경원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어찌 보면 일제 시대 때부터 가졌던 불교의 민중화라는 이념은 이미 마음 속 깊이 체현하고 있는 것이기에 따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45년부터 6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역경에 대한 말만 무성했지 열악한 재정, 불교계의 갈등 등이 역경과 관련한 뚜렷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역경의 핵심 인사들이 일제 시대 때부터 민족 정신을 체현했던 분들이므로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역경이란 자연스러운 과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국역경원의 경우 출범의 목적은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념, 일제하의 이념에 더해 당시 불교에 대한 청년학생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 귀의하는 신도들에게 읽힐 적절한 경전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덧붙여졌다. 그럼으로써 포교 또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으

로서의 역경의 목적이 대두한 것이다. 기실 대장경의 방대함과 또 그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취지의 더해짐은 적절한 것이었다.

4. 한글대장경의 의의

한글대장경의 간행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간행은 만해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순조선말로 번역하겠다”는 용지를 드러낸 지 80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또한 간경도감에서 고려대장경을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한 것을 볼 때 만약 간경도감이 단명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기구가 이어져 내려왔다면 간경도감의 사업 가운데 하나 역시 한글대장경의 간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한글 창제 이후 우리 불교계의 가장 큰 사업인 것이다. 그런 사업이 일차적인 매듭을 지은 것이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간행이다.

한편 한글대장경이 골격으로 삼은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대장경이다. 고려대장경은 중국의 대장경(宋本)에 몽골본, 거란본, 국본(國本) 등을 혹은 모두 참조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엄선하고 그것을 소승과 대승으로 나눈 후 각각 經律論 3章으로 구분하는 독창적이고 편리한 목록 체계를 사용했다. 한글대장경은 여기에 고려대장경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스님들의 저서 가운데 위대한 것들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한국 불교의 성과를 추가하여 새롭게 집대성한 것이 한글대장경이고 그럼으로써 한글대장경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자국어

불전을 소유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인과 영국인은 영어 성경을, 독일인은 독일어 성경을, 프랑스인은 프랑스 성경을 읽는다. 그렇다면 한국 불자들이 한글로 된 불전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예불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물론 전문학자들이야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또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어야 하겠으나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과제가 전문학자의 양성과 더불어 불교의 대중화의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양으로서의 불교, 신앙으로서의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까지 원전을 읽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꼭 필요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한글 불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문 경전을 읽어야 하고 절에서의 예불도 한문 경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 혹은 팔리어이다. 그것도 기술된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석에 앉으시어 설법하신 바로 그 언어라야 한다. 예불을 한문 경전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국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다. 한국어는 한국인의 사고 구조를 대변한다. 한국어로는 기술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적는다고 할 때 그 뜻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에서 불전을 번역할 때 초기에 경전의 내용과 유사한 중국사상을 연관시켜, 예를 들면 불교의 空 사상을 노장의 無와 같은 것으로 연관시켜, 부처님의 경전을 각색하여 이해하는 格義佛敎의 형식을 띠었던 것을 볼 때 중국 역시 불교가 그들의 생각 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뜻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한문 경전은 그렇고 우리말 경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경의

역사를 모르는 데에 기인한다. 오히려 한문 경전을 고집할 때 한국 불교계는 가르침은 모르고 신앙만 남는 어리석음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 특히 여러 종교가 경쟁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알고 믿고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종교가 모르고 믿어 오직 나만이 아는 종교를 제압하기란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횡행하게 된다.

나아가 자국어 불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한문 대장경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종도 지적했듯이 모든 국민들이 한자로 된 문헌을 읽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 작업이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성원들이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배경에는 권력과 권위를 독점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놓여 있다.

이렇듯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차로 완간된 한글대장경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한글대장경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 일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적어야 하는가를 회의할 수 있으나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그리고 함께 과제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적는 것이다.

5. 한글대장경 보완의 과제

여기서는 한글 불교 경전의 조건으로 문법의 측면, 논리의 측면, 그리고 문학적 가치를 들겠다. 먼저 문법의 측면에서 볼 때 초기 역경예규가 있었고 그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드러나는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문법 체계가 대단히 많이 변했다는 데 있다. 곧 60년대의 문법 체계와 90년대의 문법 체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 체계 뿐 아니라 말을 사용하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이 때 하나의 통일된 문법 체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번역된 때의 문법과 어법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송의 경장, 대승의 경장 등에 들어 있는 경전이 60년대와 70년대에 번역되고 소송의 율장, 대승의 율장은 80년대에 소송의 논장과 대승의 논장은 90년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글대장경은 <아함부>, <반야부>, <열반부> 하는 식으로 부별로 묶어 번역을 했다. 그리고 같은 대승 경장이라고 해도 어떤 경장은 70년대에 어떤 경장은 90년대에 번역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아무래도 통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지난 30여 년 동안 급격히 변화했고 그에 따라 한국인의 언어 습관, 어법도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각 불전 사이의 통일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통일성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갖추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의 난이도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1960년대에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우리나라의 보편적 수준이었다. 따라서 당시 불교용어심의위원회는 중등 교육 정도의 수준에 맞는 문장을 요구했다. 개역 작업에서 문장의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로 할 것인가,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할 것인가, 아

다면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결정은 한글대장경을 포교적인 의미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교학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목적과도 연관된다.

논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대장경은 다른 삼자의 행동과 언설은 “였다”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결집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는 이른바 서열이 있을 것이다. 과연 나이가 적거나 가장 늦게 아라한이 된 제자가 선배들 앞에서 “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아난이 말할 때는 “였습시다”나 “였지요”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집 당시의 분위기는 서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삼자의 행동에 대해 일관하여 “였다”를 쓸 것이 아니라 “였습시다” “였지요”, “였네” 등의 상황에 맞고 어울리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번역이 더욱 생동감을 준다. 또한 자연인 석가모니도 부처님이라고 칭하고 다른 자연인들 가운데 성불한 이들도 부처님이라고 칭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독자들은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님인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호칭을 고유명사 등으로 통일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글대장경이 어느 정도의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번역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련되었는가를 판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간경도감이 우리 국문학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간경도감의 사업은 첫째, 귀중한 국어학 자료를 많이 생산하여 국어학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국역 불전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일이므로 오늘날 학계의 연구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문 전적을 국역한 세조의 문화사적 의의도 대단히 높다. 그리고 둘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주요 불전의 국역본이 오늘

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이념과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얻어보기 어려운 귀중한 章疏資料를 많이 생산, 전유시킴으로써 불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한글대장경의 간행도 이런 측면에서 반성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간행한 한글대장경이 후학들에게 얼마나 많은 국어학 자료들을 제공하며 국어학사의 체계화에 얼마나 많이 이바지할 것인가? 지금부터 오백년 뒤에 한국인은 한글대장경의 일부를 20세기 한국어문학의 자료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불전을 번역한 여러 스님들의 이름이 우리가 간경도감의 주요 인물들을 기억하듯이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한글대장경을 읽고 승려와 불교학자들이 여러 논집을 내는데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야 할 것이다.

동국역경원의 역경 사업은 국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으며 또 일부나마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다 보니 정부에 번역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일관된 목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편제를 새로 만들 것인가, 또는 고려대장경의 편제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고려대장경의 목록 체계는 경, 율, 론 3장을 나누어 각각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을 구분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장에서도 경전의 순서가 있다. 기왕에 나와 있는 대장경 목록은 중국의 목록, 고려대장경의 목록, 그리고 근간에 서양의 지원을 받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팔리어 경전 등을 정리한 목록, 또 일본의 신수대장경 목록 등이 있다. 아마도 각 목록마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록을 정할 때 이런 목록 등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목록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장부를 제일 앞에 두고 또 경장 가운데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론하신 연대순으로 맞추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한국의 승려들과 불교학자들이 지은 문집을 가장 앞에 두는 방법도 있다. 곧 논장을 제일 앞에 두고 그 안에서는 한국 불교학 논집들을 두는 것이다. 어느 방법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해지는 목록 체계는 다시 천년 이상을 사용하는 체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대장경에는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지 않은 문헌들이 추가되었다. 그것들은 주로 한국 승려들이 지은 논집들인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현재까지 한국 승려와 불교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들 가운데 일부는 한문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한글로 쓰여졌을 것인 바, 한문 자료는 번역을 추가로 하고 한글 자료는 그대로 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글대장경의 중심은 한국의 승려와 불교학자들인 바 논장 부분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는 만해 스님이 “주를 내어 아무리 초학자라도 한번 보면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함”을 실천하는 것과 상통한다. 특히 동국대학교 학술정보팀에서 올해 초 완성한 <한국불교관계 논저 종합목록>은 이 작업을 하는 데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해동역경원은 역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전의 교열, 번역, 證義, 운문, 교정의 다섯 과정을 거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제도가 동국역경원에도 음으로 양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다만 인력의 부족, 시간에 쫓김 등의 이유로 인해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간경도감의 경우 국비를 어렵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역경사의 수가 많을 때는 백예순명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일부를 그리고 다원화된 종교를 가진 국가의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 받은 동국역경원이, 한정된 수의 역경사를 동원해서 그것도 90년대 들어서에는 한해에 서른권씩 번역, 간

행을 강행했던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찬찬히 밟는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대장경>의 완간과 더불어 다시 개편 보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 곧 맞춤법 표기와 체제를 통일하고 사전과 주석, 색인을 추가하는 작업이 추가로 요청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동국역경원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국대학교 부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동국역경원이 뒤에서 논의하겠으나 전자불전연구소와 함께 앞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동국역경원이 동국대학교 바깥의 법인으로 재출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우선 재원의 확보가 문제인데 정부나 불교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실 동국역경원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까닭은 동국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인데 정부의 경우도 일반 사설단체-비록 그 단체가 법인이라 할지라도-에 재정지원을 해주지는 않으므로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이라는 지위가 효율적이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인지 아니면 조계종 산하 역경원인지 아직도 인사 체계 등에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불전 간행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범 당시의 독립법인 설립이 여러 현실적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불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동국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서 새로운 편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전자불전 제작의 현황과 주안점

한글대장경의 다음 순서는 당연히 전자 불전을 펴내는 일이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들이 없다. 사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고전들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하고 CD-ROM 등의 저장매체로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Perseus Digital Library이다. 이 사이트는 고전어 문헌들을 고전어와 영어로 서비스한다. 그리고 팔리어 불전이나 영어로 번역된 불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한글 전자 불전도 필요한 것인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포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불교 사이트도 방문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한글 전자 불전 사이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한민국이 불국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화엄경을 읽어도 성불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학보다는 선에 치우친 한국 불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는 이제 교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한글 전자 불전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자 불전의 제작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수년 뒤에는 당연히 훌륭한 전자 불전이 출현하겠지만 도대체 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유학의 문집들이 도서관 건축비만 올리고 있을 뿐 한국 사회의 발전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류의 문헌

이 구전 - 필사본 - 판본 - 활자본의 순서를 거쳐 이제는 전자본으로 나아가고 있고 불전은 각 문명의 첫 시기에 이런 매체의 변화 과정을 선도했음을 볼 때 불전이 전자본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여기서의 한글 전자 불전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이 어떻게 간행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겠다. 그리고 한글 전자 불전, 고려대장경,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 스리랑카의 팔리어 불전, 태국의 BUDSIR 프로젝트, 티베트 대장경, 산스크리트어 대장경 등을 하나로 모은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을 펴내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겠다.

무엇보다도 한글 전자 불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한글대장경이 완전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한글대장경들의 부분적인 결함이 꾸준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승려와 학자들에 의한 불교 문헌과 자료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모은 자료들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을 신는 방법도 있고 또 모든 자료들을 신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함을 수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일단 전자문서로 만든 뒤에 수정할 수도 있고 책이나 원고지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전자문서로 만들 수도 있다. 아마도 전자문서로 먼저 만드는 것이 좀더 실용적인 절차가 아닌가 한다. 특히 여기서 더 나아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부분적으로 공개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완벽한 검색시스템이란 어떤 하나의 단어를 검색할 때 그 단어의 정의를 보여주고 또 그 디지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문헌에서 몇 번 쓰였으며 소목록으로 나뉘 어디에서 몇 번 쓰이고 등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이 비교적 잘 된 디지털 문헌으로는 Perseus Digital Library이다.

불전은 문자별로 분류할 때 세 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팔리어

불전이며 다른 하나는 한역 불전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티베트어 불전이다. 인도에서 데바나가리 문자로 집대성되었던 산스크리트를 원어로 한 불전들은 많은 수가 일실되고 일부만이 남았으며 티베트어 번역본으로 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스크리트어 불전들은 경, 율, 논 삼장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불전을 디지털로 만드는 일은 한국, 일본과 대만, 스리랑카, 티베트, 영국, 미국 등에서 하고 있으며 태국은 이미 마친 상태이다. 한국은 앞서 한역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를 마쳤는데 이는 일본이나 대만의 한역대장경에 앞서는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대정신수대장경의 디지털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 초에 보급판을 완성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한역인 돈황본 경전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아시아고전 입력계획은 티베트 대장경을 입력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1986년 팔리어의 삼라타판 불전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1988년에 첫번째 판인 BUDSIR(BUDDhist Scriptures Information Retrieval)을 완성했는데, 이는 팔리 불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산화된 것이다. 현재 이 디지털 불전은 BUDSIR IV라는 검색 도구와 함께 CD-ROM으로 완성, 마이돌 대학과 미국 종교학회를 통해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www.mahidol.ac.th/budsir)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스리랑카의 팔리 불전 프로젝트는 태국의 BUDSIR와 마찬가지로 팔리어 불전을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스리랑카의 팔리 불전 프로젝트는 세일론 팔리어(싱하라) 및 로마자 팔리어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사업에는 영국 및 미국 등지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팔리어 불전 전산화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입력된 파일을 <Journal of Buddhist Ehtics>의 홈페이지인 jbe.la.psu.edu 또는 jbe.gold.ac.uk

를 통해 무료로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아직 검색 도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팔리어 폰트를 설치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은 이러한 한문, 팔리어, 티베트어,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된 불전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일컫는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존하는 모든 불전들을 집대성하게 됨으로써 불교학 연구에 진일보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불전 전산화와 관련, 각국의 기술적, 학문적 성과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디지털 불전의 상호 대조와 연결이 가능한 표준화된 체계의 출현이라는 성과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세계불전전산화협의회(Electronic Buddhist Text Initiative, 이하 EBTI)는 2000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등 3백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각국의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추진 중인 대장경 전산화 작업들을 연계시켜 통합대장경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BTI는 이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 허인섭 학술부장을 비롯해 동국대 이용규, 이금석,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 알래스카대 존 레이먼 교수, 대만 중화전자불전연합회 크리스티안 위턴 박사 등 9명으로 '통합대장경 표준화 기술소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기술소위는 각국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합, 연결하는 것 외에도 여러 언어로 된 경전들을 체계화시켜 낱말, 뜻, 명칭, 구조, 체계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연계 고리를 통해 다각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작업의 과제로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앞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목록 체계에 각국이 합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팔리어 불전들은 율장, 경장의 순서로 되어 있다. 고려대

장경은 대승의 경, 율, 논, 소승의 경, 율, 논, 현성집전의 목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고려대장경은 아직 결정된 목록 체계가 없다.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은 경전 내용에 따른 분류에 경전의 역사적 성립을 가미한 목록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아마도 통일된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서 각국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목록 체계가 제대로 구성돼야 각 언어로 기술된 불전들에 대한 복합적인 링크와 마크업이 가능해진다. 둘째는 한역 대장경에서 직면하는 문제인데 현재 고려 대장경의 4바이트 폰트 체계와 대정신수대장경의 4바이트 폰트 체계는 상이하다. 이 문제에 대해 양국 간 담당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양국이 공히 독자적인 폰트 개발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이한 4바이트 폰트 체계가 통합 디지털 불전에서 호환이 될지,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셋째, 현재로서는 각국의 불전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저가 서로 다르다.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웹 브라우저가 각국의 불전들을 모두 읽고 검색할 수 있는가가 과제이다. 넷째, 이 기구에는 스리랑카의 팔리 불전이 현재로서는 제외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의 팔리 불전, 그러니까 싱하라 팔리어 불전은 불전의 원형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다언어 디지털 불전에서 싱하라 팔리어 불전이 제외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결실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다.

이것들은 국제적인 과제들이고 한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에 한글 불전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것은 불교학의 국제적 연구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한글 불전을 전산화하는 역량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완결된 한글 불전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한국 불교학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7. 문화 전략으로서의 전자불전

말미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한글대장경의 보완은 동국역경원에서 전자불전의 제작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는 전략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 주도권의 다툼이다. 문화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아마도 한국에서 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디지털 불전은 고려대장경 디지털 이미지, 4바이트로 제작된, 검색 시스템이 갖추어진 고려대장경, 그리고 한글대장경의 통합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의 편찬에서도 주도적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고려대장경이 되었든, 한글대장경이 되었든, 또는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이 되었든 그것들의 바탕에는 인문학적 연구와 안목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 작업들은 전적으로 인문학의 영역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불전 전산화 작업은 우리의 인문학 수준에 대한 역량을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의 말미에 사족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경험한 시해착오이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다언어 통합 디지털 불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한국에서 여러 디지털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대장경 전산화본(고려대장경 2000,

2001)은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했다. 그럼으로써 애써 이룬 성과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고려대장경 2002’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정신을 체현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개 자신들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염두에 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편견이 개입된 문화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편견 때문에 힘들여 만든 자료들의 학술적인 가치가 줄어 들 수도 있다. 태국의 BUDSIR의 경우 입력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검색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초기에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돌아갔으나, 새로운 버전은 윈도 환경을 받아 들여 활용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 자료는 특정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벗어나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문헌 정보의 전산화는 국제적인 표준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개방성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그것은 그 문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에서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글전자불전은 이런 부분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할 것이다.